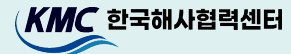


IMO 소식 & 국제해사동향



01

IMO 소식

선박 재활용 워크숍, 방글라데시에서 개최



〈IMO,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선박 재활용 촉진, 출처: IMO〉

- 「선박 재활용 워크숍」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방글라데시 다카(Dhaka)와 차토그람(Chattogram)에서 4차례*에 걸쳐 개최됨. 이 워크숍에는 300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,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 방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.

* (다카) 4월 24~25일, 5월 8~9일 / (차토그람) 4월 28~29일, 5월 5~6일

- 조선소 관리자, 국가별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워크숍 참석자들은 선박 재활용산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 관리뿐만 아니라 선박재활용협약*(SRC)의 이행을 위한 경험과 모범사례, 전략 등을 공유하였음.

* Ship Recycling Convention 2009, 일명 '홍콩협약'이라고 불림. 선박 해체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해체시설 승인 등 무분별한 선박 해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 2009년 채택되었으며, 2023년 6월 발효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25년 6월 발효될 예정임.

- ▶ 워크숍 기간 중 훈련(Training) 세션은 노르웨이의 자금 지원을 받아 IMO와 방글라데시 산업부가 시행하는 SENSREC*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.

*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: 2015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지속가능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,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을 위한 홍콩협약의 국가별 이행 진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- ▶ 메인 워크숍에는 Zakia Sultana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과 Espen Ritker-Svendsen 주(駐)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대사가 주빈으로 참석하였음. 또한 워크숍에 참석한 국제노동기구(ILO)는 선박 재활용작업 관련 운영상 안전·보건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였고,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와 독일국제협력공사(GIZ)는 유해 폐기물 관리·처리에 대한 최근 국가규제 동향 및 처리·저장 시설 설립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.

김 현 중 영문에디터
kem5651@imkmc.or.kr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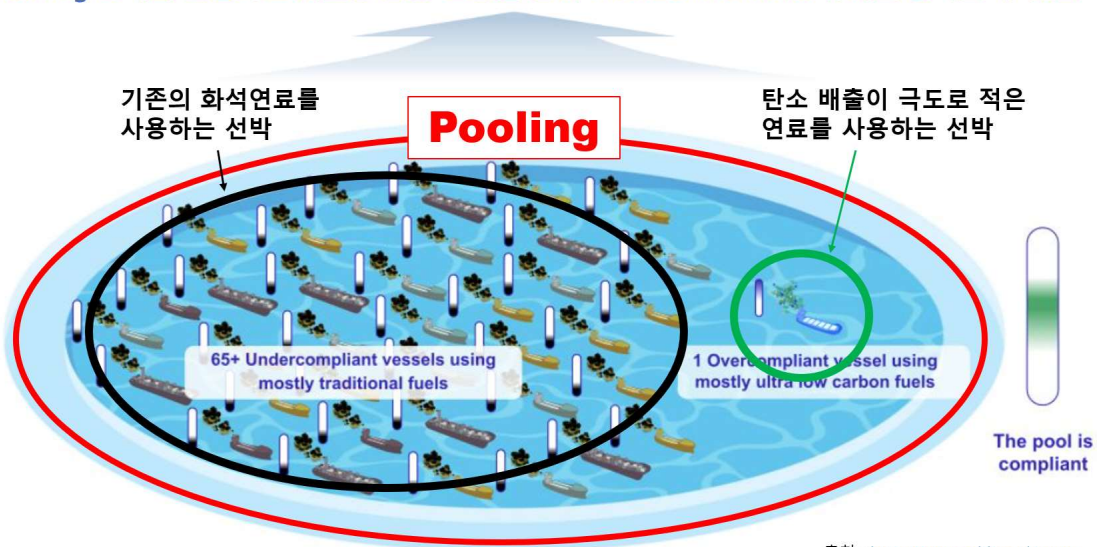
국제해사동향

선박 Pooling 제도가 FuelEU Maritime 규제 이행에 미치는 영향

(출처 : Riviera News, '24. 5. 6.)

- 유럽지역 해운산업 탈탄소화 데이터 분석 전문회사 Ahti Climate의 CEO인 Risto-Juhani Kariranta는 2025년 1월부터 EU 항행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될 FuelEU Maritime 규제에서 선박 Pooling 제도가 규제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.
 - ▶ EU Fit for 55 입법의 일환인 FuelEU Maritime은 해상운송에서 재생가능한 연료 또는 저탄소 연료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제임. EU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집약도(gCO₂eq/MJ)를 2050년까지 80%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 - ▶ 선박 Pooling 제도는 FuelEU Maritime 규제의 유연한 이행을 위한 일종의 보조수단으로,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기간이 같은 선박들을 하나의 Pool로 묶어 배출량을 평균값으로 통합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. 이 제도를 활용하면 Pool에 포함된 일부 선박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연료유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음.

Pooling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합 산정을 통해 FuelEU Maritime 규제를 충족할 수 있음

출처 : <https://swzmaritime.nl/news>

〈 Pooling 제도의 개념도, 출처: SWZ/MARITIME 〉

- 일례로 e-메탄올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5 gCO₂e/MJ이고, HFO는 91.6 gCO₂e/MJ임. 2030년까지 FuelEU Maritime 규제에서 제한하는 온실가스 집약도는 89.3 gCO₂e/MJ이므로 만약 한 척의 선박이 e-메탄올 연료를 사용한다면, 이 선박과 Pooling을 구축한 나머지 37척의 선박은 기존의 HFO 연료를 사용해도 탄소집약도 제한 규제를 충족할 수 있음.
- Risto-Juhani Kariranta는 “Pooling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선단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 FuelEU Maritime 규제 이행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”고 언급함.

황 대 중 전문연구원
hdaejung@imkmc.or.kr

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

(출처: 해운산업신문, '24. 5. 9.)

- 지난 5월 9일 부산 라발스호텔에서 개최된 '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(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)' 행사가 해운·조선업계 여성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음.
- ▶ '안전한 수평선: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'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진행되었으며, 미래의 바다를 이끌 여성 리더의 역할과 역량,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안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이 마련되었음.



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, 출처:해양수산부 〉

- 국제해사기구(IMO)는 해사분야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해사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5월 18일을 '세계 여성해사인의 날'로 정하고 2022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, 각 회원국에도 기념행사 개최를 권고하였음. 이에 우리나라도 매년 기념행사*를 추진하고 있음.

* (제1회)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제정 축하 및 IMO WIMA Korea 창립 기념행사 / '22.5.2, 세종
(제2회) 제1회 IMO 병행행사(Parallel Event) / '23.6.14, 서울

-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“허은정 한국선급 책임검사원이 2023 IMO 양성평등 표창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,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사산업분야 양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 라고 언급함.

박 다 영 연구원
iris23@imkmc.or.kr

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해운업계 관행 변화 필요

(출처 : Riviera Maritime Media, '24.5.14.)

- 국제해운업계를 보면, 지난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IMO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한편, 다른 대체연료의 가치를 폄하해서 특정 대체연료를 홍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- DNV Maritime의 CEO인 Knut Ørbeck-Nilssen은 Riviera Maritime Media와의 인터뷰에서 “특정 대체연료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, 다른 대체연료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”고 언급하며, 선종별·규모별로 적합한 선박연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연료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함.
- IMO 규제, FuelEU Maritime, EU ETS와 같은 국제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선주들은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 중심으로 선박연료를 전환하고 있음. 그러나 선대별로 LNG, 메탄올 및 암모니아 등 적합한 연료가 다르고, 바이오연료의 경우 전환은 용이하나 타 부문과의 경쟁으로 인해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 Knut Ørbeck-Nilssen은 “IMO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(ESD) 개발을 위한 투자 및 더 나은 연료(better fuels) 공급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하고, “근본적으로 해운업계가 현재의 관행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를 확립하고, 혁신적인 기회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”고 강조함.
- 또한 Nilssen은 혁신적인 기회와 해결 방안의 하나로 ‘원자력’을 꼽으며, “향후 소형모듈원자로(SMR)가 녹색해운항로에서 선박을 추진하거나 e-연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망함.
 - ▶ Nilssen은 “원자로의 선박 탑재 여부는 원자력을 통제할 수 있는 특정 국가 또는 해당 항로에 위치한 양 당사국이 판단·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”라며, “일반적으로 원자력을 통해 생산되는 e-연료를 분홍색으로 표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원자력 추진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는 녹색항로 대신 ‘핑크항로(pink corridor)’로 용어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”고 언급함.

안삼엘 연구원

samela@imkmc.or.kr